

四象人 體質病證중 表病과 裏病의 개념규정에 대한 연구

곽창규 · 손은혜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concept of exterior disease and interior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Kwak Chang-Kyu-Sohn Eun-Hae-Lee Eui-Ju-Koh Byung-Hee-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Objectives

This paper was tried to find out Dongmu Lee Je-ma's concept about the exterior disease and the interior disease.

Methods

The study was researched as bibliologically with Dongmu Lee Je-ma's writings such as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ngyun』, 『Dongyi Suse Bowon』 written in 1894, 『Dongyi Suse Bowon』 published in 1901

Results and Conclusion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1. In Dongmu Lee Je-ma's book, There are no clear definition about the concept of the exterior disease and the interior disease.
2. At Dongmu's early works, the exterior disease and the interior disease were classified by the cause and the region of a disease. On the other hand, That were reclassified by the characteristic of Constitutional symptoms at 『Dongyi Suse Bowon』 published in 1901
3. In Dongmu Lee Je-ma's concept, If men is damaged the exterior Qi(表氣), he will be sick 'he exterior disease'. The other hand, If men is damaged the interior Qi(裏氣), he will be sick 'the interior disease'.

Key Words: Constitution Medicine, The exterior disease, The interior disease, The exterior Qi, The interior Qi

I. 緒 論

東武 李濟馬(1837~1900, 이하 '東武'로 약칭)는 그의 四象哲學에 근거한 體質證과 體質病證을 새롭게 정립하여 『東醫壽世保元』¹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중 體質病證에 대해서는 『東醫壽世保元』의 각 체질별 病證論에 주로 나타나는데 表病과 裏病을 나누어 病證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體質을 진단한 후 體質病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表病과 裏病을 나누어 보는 것이 診斷과 治療의 一段階가 될 것이다.

이는 『黃帝內經』과 『傷寒論』에서부터 기원하여 『東醫寶鑑』²에 이르러 정리된 既存 韓醫學(이하 '기존 한의학'으로 약칭)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다. 한의학적인 病證인식에서 陰과 陽을 구분

접수일 2004년 3월 31일; 승인일 2004년 4월 15일
* 교신저자: 이 의 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4-5 강남경희한방병원 체질의학센터
Tel: +82-2-3457-9090, Fax: +82-2-3457-9100
E-mail: sasangin@khu.ac.kr

하는 것이 진단의 시작이며 陰과 陽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 왜냐하면 한의학에서 보는 건강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없이 平衡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陰과 陽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 적용할 때에는 表裏, 寒熱, 虛實로 세분하여 진단하는데 이를 종합하여 八綱辨證이라 한다. 張介賓은 1624년 『景岳全書傳忠錄 明理篇』³에서 “陰陽既明則 表與裏對 虛與實對 寒與熱對 明此六變 明此陰陽 則天下之病 固不能出此八者”라 하여 이를 정리하고 있다.

體質病證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본 논문의 주제인 四象醫學의 表裏病과 연관해서 崔義權과 金敬堯⁴는 “四象醫學에서의 陰陽·寒熱·表裏·虛實病理의 變用”에서 八綱辨證이 四象醫學에서 어떻게 바뀌어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研究하였고, 李壽瓊과 宋一炳⁵은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の 「病證論」에 관한 研究에서 『東醫壽世保元』의 病證論에 註釋을 가하는 형식으로 四象醫學의 體質病證에 대해 包括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表裏病證에 대한 研究가 포함되어 있다. 趙晃晟⁶은 “性情과 表裏證과의 關係”에서 表裏病證이 性과 情에 의해서 발생하는 機轉을 論하였고, 朴性植⁷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에서 甲午本과 庚子本에서의 表裏病證 篇名의 차이와 辛丑本에서 篇名이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論하였다.

그런데, 상기 연구에서는 表病과 裏病의 구체적인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만약 表病과 裏病을 논하는데 공통된 구분기준과 개념이 없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東武가 제시한 表病과 裏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東武의 저작을 시대순으로 연구하여 表病과 裏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의 우리가 體質病證論을 완성해 감에 있어서 기존 한의학과 다른 體質病證論중 表病과 裏病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四象人 體質病證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존 한의학이나 東武의 여러

저작에서 혼용된 다양한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II. 研究材料 및 方法

表裏辨證을 포함한 八綱辨證은 『內經』과 『傷寒論』에서 발전되어 宋代에 초보적인 틀이 완성되었고, 明代 張介賓의 『景岳全書』³에 이르러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清代 程國彭의 『醫學心悟』⁹를 따라 확대 보급되었다.¹⁾

그러므로, 表病과 裏病의 既存 漢醫學에서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韓方病理學書籍^{10,11}과 『景岳全書』³, 『醫學心悟』⁹ 그리고 東武가 주로 參考한 綜合醫書인 『東醫寶鑑』²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東武가 의학을 본격적으로 論하면서 저술한 著作중에서 病證論 篇名을 表病과 裏病으로 구분하여 敍述한 것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⁸부터이다. 이전 著作인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¹²에서도 단편적으로 몇 가지 藥物과 處方을 表證藥과 裏證藥으로 구분하여 적용²⁾하는 것을 보면 表病과 裏病에 대한 구별이 있었다고 思慮되지만 구체적으로 病證을 구분하여 논하지는 못했다.

『東醫壽世保元』은 1894年(甲午年)에 처음 지어졌으나, 이후 임상경험을 축적하여 1900年(庚子年)까지 性命論부터 太陰人論까지 改草하였고, 東武가 사망한 후 그의 門徒(金永寬 等)들에 의해 1901년에 처음으로 新舊本을 합하여 栗洞契에서 출판하였다.³⁾ 그러므로,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表病과 裏病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東醫壽世保元 甲午本』⁸과 『東醫壽世

1) 崔昇勳. 韓方病理學, 서울, 一中社. 1997. pp.287-289.

2)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 C.2.18. 參苓湯: 苦參 赤茯苓 各二錢, 猪苓 澤瀉 車前子 瓜蒌仁 羌活 獨活 前胡 柴胡 荊芥 防風 各一錢, 裏症第一神效方.

* C.5.1. 乾柿湯: 治太陽人表證. 乾柿 五加皮 蕎麥 各三錢.

* C.5.2. 獼猴桃湯: 治太陽人裏證. 獼猴桃 葡萄 各三錢, 木果 二錢, 白芍藥 生甘草 各一錢.

3)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32.

保元 辛丑本¹⁾의 내용을 모두 참고하여 東武의 表裏病證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 중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은 草本卷으로 약칭하고, 『東醫壽世保元 甲午本』⁸⁾은 甲午本이라 약칭하고,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은 辛丑本이라 약칭한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중 辛丑本에서 개초되지 않은 내용은 甲午本을 인용한다.

本文의 引用文獻 중 李濟馬의 書籍에 붙은 條文番號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은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에서 발행한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¹²⁾을 기준으로 한다.
-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은 四象體質醫學會에서 2001년 발행한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復元本-⁸⁾을 기준으로 한다.
-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은 四象醫學教科書¹³⁾를 기준으로 한다.

III. 本 論

1. 기존 한의학에서 제시한 表病과 裏病의 개념

1) 表病과 裏病의 구분

기존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과 발생 부위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表病과 裏病을 구분하고 있다.

(1) 病의 原因에 따른 구분

表病은 病邪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風寒 暑濕燥火의 不正한 氣가 원인이 된 경우이고⁴⁾ 裏病은 病이 內部에서 發生한 것으로 七情, 勞倦, 飲食所傷, 酒色所困등이 원인이 된 경우이다.⁵⁾

(2) 病의 發生 部位에 따른 구분

表病은 病이 皮毛, 肌腠 등 인체의 淺部에 있는 경우이고 裏病은 病이 臟腑, 血脈, 骨髓 등 인체의 深部에 있는 경우이다.⁶⁾

4) 『景岳全書傳忠錄 表證篇』

* 表證者 邪氣之自外而入者也 凡風寒暑濕燥火 氣有 不正 皆是也.

5) 『景岳全書傳忠錄 裏病篇』

* 裏證者 病之在內在臟也 凡病自內生 卽或因七情 或因勞倦 或因飲食所傷 或爲酒色所困 皆爲裏證

6) 文潸典, 安圭錫, 崔昇勳.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3) 病의 症狀에 따른 구분

表病은 發熱惡寒 頭痛鼻塞 舌上無苔 脈息浮등과 같은 症狀이 있는 경우이고 裏病은 潮熱惡熱 腹痛口燥 舌苔黃黑 脈息沈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이다.⁷⁾

2) 表病과 裏病의 특징

(1) 일반적으로 新病과 病程이 짧은 것은 대부분 表證에 속하고, 久病이거나 病程이 긴 것은 대부분 裏證에 속한다.⁸⁾

(2) 表病과 裏病으로 病證이 고정되지 않고 어떠한 조건이 되면 表病이 裏病이 되기도 하고 裏病이 表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轉變의 發生은 주로 邪正雙方의 투쟁에서 결정된다. 表證이 裏로 들어가는 것은 대개 機體의 抗邪能力이 減退하거나 혹은 邪氣의 過盛, 혹은 看護調理의 不當 혹은 誤治 失治 등의 요소에 기인한다. 裏證이 表로 나가는 것은 대개 治療, 看護調理의 適當 및 機體의 抗邪能力의 增強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表證이 裏로 들어가는 것은 病勢가 加重되는 표시이며 裏證이 表로 나가는 것은 邪가 退路에 있어 병세가 減輕되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證候의 表裏出入의 변화를 파악하면 疾病의 發展과 轉歸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⁹⁾

2. 東武가 제시한 表病과 裏病

1) 病證을 表病과 裏病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게 된 배경

體質病證論을 구성하는 각각의 病證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성질의 病證(一證, 一屬)중에서 輕證과 重證으로 나누어 진다.¹⁰⁾

1993.

7) 『醫學心悟寒熱虛實表裏陰陽辨』

* 病之表裏 全在發熱與潮熱 惡寒與惡熱 頭痛與腹痛 鼻塞與口燥 舌苔之有無 脈之浮沈以分之 假如發熱 惡寒 頭痛鼻塞 舌上無苔 脈息浮 此表也 假如潮熱惡熱 腹痛口燥 舌苔黃黑 脈息沈 此裏也.

8) 文潸典, 安圭錫, 崔昇勳.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3. p.261.

9) 文潸典, 安圭錫, 崔昇勳.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3. p.263.

예를 들어, 少陰人에게 나타나는 痞滿 黃疸 浮腫 증상에 대해 기존 한의학에서는 원인과 치법이 다른 개별적인 病證으로 다루지만 東武는 한 가지 證(太陰證)에서 나왔는데 輕重의 차이가 있는 病證으로 인식하여 유사한 치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병증구분의 대표적인 방법은 表病과 裏病으로 나누는 것이다.

즉, 기존 한의학(특히 『傷寒論』)에서 三陰三陽으로 要約한 病證의 概念을 李濟馬는 腹背表裏라는 構造的인 概念으로 單純化시켜서 이해하였다.¹¹⁾

2) 表病과 裏病의 구분

東武가 의학에 대해 저술한 서적인 草本卷과 甲午本, 辛丑本을 저술시대 순서로 살펴본다.

(1) 草本卷에 나타난 表病과 裏病의 개념

草本卷에서는 발병의 원인을 크게 財權酒色과 內傷 그리고 外觸을 들고 있다.¹²⁾

이때 財權酒色은 東武가 人事를 어지럽히는 제일 큰 원인으로 삼은 것으로 性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四象人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위협하는 제일 대표적인 요인이다.

內傷과 外觸(外感)은 東武가 건강의 등급을 8단계로 나누어 命脈實數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위의 4단계는 건강한 사람의 등급이고 아래의 4단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등급에 해당되는데 질병의 등급 중에 보다 가벼운 것은 外感度數로서 表氣가 손상되어 발생하고, 그 보다 중한 것은 內傷度數로서 裏氣가 손상되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¹³⁾

이를 통해서 보면 구체적인 병증의 인식에 있어서 外感和 內傷이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外感이 內傷보다 가벼운 병증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外感和 內傷이 表病과 裏病의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 이는 기존 한의학에서 表病과 裏病을 나누는 대표적인 기준인 병의 원인에 따른 구분이다.

그런데, 체질별로 치료 약물을 제시함에 있어서 크게 解表藥과 通膈藥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¹⁴⁾ 이 중 解表藥는 表病을 치료하는 개념으로, 通膈藥은 裏病을 치료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처방일 것으로 사려되는데 이때의 解表와 通膈은 부위적인 개념이 위주가 된 것이다.

이로써 草本卷에 나타난 表病과 裏病의 개념은 병의 원인과 발생 부위에 따라 表病은 外感으로 인해 인체의 表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表氣가 손상된 것이고, 裏病은 內傷으로 인해 인체의 裏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裏氣가 손상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甲午本에 나타난 表病과 裏病의 개념

① 表病과 裏病의 구분

甲午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體質病證을 각각 表病論과 裏病論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각 체질별로 表病과 裏病의 명칭을 달리하여 제

10)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陰人胃受寒寒病論』
* 7-70 ... 然 肥滿 黃疸 浮腫 同出一證 而有輕重 若欲利小便 則乾薑 良薑 陳皮 青皮 香附子 益智仁 能利少陰人小便 荊芥 防風 羌活 獨活 茯苓 澤瀉 能利少陽人小便.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陽人泛論』
* 11-1 少陽人病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 五證 同出一屬 而自有輕重 浮腫 喘促 結胸 痢疾 寒熱往來 胸脇滿 五證 同出一屬 而自有輕重.

11) 『東醫壽世保元醫源論』
* 5-4 ... 若夫脈法者 執證之一端也. 其理在於浮沈遲數 而不必究其奇妙之致也. 三陰三陽者 辨證之同異也. 其理在於腹背表裏 而不必究其經絡之變也.

12)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病變第二統』
* B.2.1 太陽人財權酒色凡百內傷外觸皆損肝, 故太陽人以肝臟剝削爲命脈長短.
太陰人財權酒色凡百內傷外觸皆損肺, 故太陰人以肺臟剝削爲命脈長短.
少陽人財權酒色凡百內傷外觸皆損腎, 故少陽人以腎臟剝削爲命脈長短.
少陰人財權酒色凡百內傷外觸皆損脾, 故少陰人以脾臟剝削爲命脈長短.

13)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病變第二統』

* B.2.3 臟部一半命脈實數平分八載, ...
第五載 名曰外感度數 言表氣外虧也.
第六載 名曰內傷度數 言裏氣內損也. ...

14)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病變第六統』

* B.7.7
少陰解表之藥 輕則葱白 蘇葉 重則人參 桂枝
少陽解表之藥 輕則防風 重則羌活 柴胡
太陰解表之藥 輕則麻黃 杏仁 重則牛黃 熊膽
少陰通膈之藥 輕則桃仁 當歸 大小承氣湯 重則如意丹
少陽通膈之藥 輕則香油 蓖麻油 重則黑丑 甘遂 芫花
太陰通膈之藥 輕則大黃 青礞石 重則皂角 瓜蒂.

시하고 있다. 表裏病의 篇名을 보면 甲午本에서 表病과 裏病을 구분할때 사용한 주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少陰人 外感膂病論·內觸胃病論, 少陽人 外感膀胱病論·內觸大腸病論, 太陰人 外感腦佳眞病論·內觸胃脘病論, 太陽人 外感腰脊病·內觸小腸病이 그것인데 각 체질별로 外感○病論과 內觸○○病論으로 病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外感和 內觸이라는 발병원인에 따라서 表病과 裏病을 구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병증에서도 이러한 명칭이 사용되는데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表病論에서 기존 의서에 나온 근거 조문을 제시하면서 少陰人外感表證, 少陽人外感表證, 太陰人外感表病輕證이라고 규정하는 것¹⁵⁾을 볼 수 있다. 또, 少陰人 裏病은 기본적으로 大腸의 胃氣가 허약하여 음식물이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소화되어 下利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병증의 輕重이 나누어진다.¹⁶⁾

그러므로, 少陰人 太陽病 胃家實證은 비록 증상이 胃中燥煩 大便難처럼 위장관 증상이 있을 지라도 外感寒邪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表病에 배속된다.¹⁷⁾ 그리고, 黃疸처럼 體表에 증상이 나타날 지라도 병의 원인이 太陰大腸의 胃氣가 冷氣를 몰아내지 못한 것이므로 裏病에 배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⁸⁾

그런데, 少陽人 表病의 경우 外感和 內觸에 의

해서 表病과 裏病을 크게 구분 하지만, 外感表證에서도 寒多者는 荊防敗毒散을 사용하고 熱多者는 裏病藥인 石膏가 들어있는 裏病處方인 防風通聖散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병의 원인에 의해 表裏病을 구분하지만 병의 증상에 따라 表病에서도 裏病藥을 사용하는 혼란된 상황을 맞게 된다.

단, 表病人 惡寒症에 大便不通症狀이 있을 경우에 약을 사용하면 10중 8, 9는 살 수 있지만 裏病人 譫語證에 大便不通症狀이 있을 경우는 10중 8, 9는 손을 쓸 수 없으므로 예방을 하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¹⁹⁾을 보면 같은 大便不通症狀이라도 表病에서 나타날 때와 裏病에서 나타날 때 증상의 輕重이 다름을 알 수 있다.

② 表裏之表裏病의 구분

甲午本에서는 表裏之表裏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表裏病證을 구분하면서 表裏之表裏病으로 다시 病證을 구분한다.

즉, 表裏病을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i. 胸背腹脊으로 表裏를 구분

- 예; 少陽人結胸(外冷包裏熱), 少陰人少腹硬滿病(外熱包裏冷).

ii. 上下로서 表裏를 區分 (즉, 이미 表裏病에 배속된 상황에서 다시 上下로 表裏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예; 少陰人胃家實病과 脾約病.²⁰⁾

이 중에서 腹背(人體의 前後)로서 表裏를 구분하는 방식은 체질에 상관없이 같아서 背部는 表病에 속하고 腹部는 裏病에 속하나, 上下로서 表

15)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膂病論』
* 6.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病 卽 少陰人外感表證也 ...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陽人外感膀胱病論』
* 2. 今考更定 發熱惡寒脈浮緊身痛不汗出而煩躁者 卽 少陽人外感表證也 ...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太陰人外感腦佳眞病論』
* 2. ... 傷寒頭痛身疼腰痛以至牽連白骨節俱痛者 卽 太陰人外感表病輕證也

16)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內觸胃病論』
* 13.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 少陰人 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塞滯而一二三日內新氣添積漸得快健則 終能變革消化下利之證也

17)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膂病論』
* 28. 論曰 張仲景所論胃家實病 ... 此病 無惡寒者 非寒邪退却也 乃寒邪深入外束也 此病 當謂之太陽病

18)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內觸胃病論』
* 28. ... 太陰病腹滿食不下而表氣壅遏之病 始發於太陰大腸之胃氣 不能逐冷氣而 太陽膀胱之氣 亦不通快而凝結則 其病 爲黃疸而 危證之勢 終至入腹喘滿也 ...

19)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陽人內觸大腸病論』
* 10. 膀胱病惡寒證 大便過三晝夜有餘而危險者 用藥則 十之八九必有生者也
大腸病譫語證 大便秘閉者 二晝夜前 命已傾矣 兩晝一夜·兩夜一晝則 十之八九無及矣 宜用預防 錦上添花白虎湯 渡海白虎湯

20)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陽人外感膀胱病論』
* 22. 或曰吾子論少陰人胃家實脾約病曰, 膀胱者, 陰之分局而表局也. 膂腹者, 陽之分局而裏局也. 此則以背部上下分表裏者也. 論少陽人結胸, 少陰人少腹硬滿病曰, 外冷包裏熱, 外熱包裏冷, 此則以胸背脊腹分表裏者也. 二說互相矛盾, 使人滋惑, 何不辨歟. 曰然少陰人病則, 張仲景以太陽陽明 論表裏, 故余亦不得不以背部上下 論表裏也. 少陽人病則, 張仲景以表解裏未和之胸背腹脊者 論表裏, 故余亦不得不以胸背腹脊 論表裏也, 蓋 胸背腹脊者, 表裏之表裏也. 背部上下者, 表之表裏也.

裏를 나누는 방식은 체질에 따라 다르며 기존 한의학과도 차이가 난다. 몸통을 上下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기존 한의학에서는 上部를 表部로 下部를 裏部로 규정하나, 甲午本에서는 體質別로 偏大之臟이 있는 부위를 標와 表部로 보고 偏小之臟이 있는 부위를 本과 裏部로 인식하고 있다.

少陰人의 경우를 예로 들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A classification of the Soeunin exterior disease and interior disease mentioned in 『Dongyi Suse Bowon』written in 1894

上下分 表裏	腹背(前後) 分 表裏	
	裏病(腹部)	表病(背部)
裏病(膈膜-陽之分局而裏局)	少陰病	脾約病
	裏之裏病	表之裏病
表病(膀胱-陰之分局而表局)	太陰病	胃家實病
	裏之表病	表之表病

表裏之表病은 그 병세가 완만하고 치료하기 쉬우며 약효도 빠르지만 表裏之裏病은 그 병세가 급하여 치료하기 어렵고 喜怒哀樂이 眞氣를 손상한 것이 주된 증상이므로 약으로만 치료하기는 힘들고 調養에 힘써야 한다.²¹⁾

③ 表氣와 裏氣

草本卷에 이어 甲午本에서도 表氣와 裏氣를 이용하여 병리를 설명하고 있다.

甲午本 太陽人病證論에서는 表病은 表氣가 傷한 병이고 裏病은 裏氣가 傷한 병이라고 하였다. 원인은 性과 情에 傷한 것인데 太陽人의 哀心(性)이 깊어 들러붙으면 表氣를 상하여 解體病이 되고 怒心(情)이 暴發하면 裏氣를 상하여 噎膈病이 된다. 이때 表氣란 鼻腰脊氣를 의미하고 裏氣란 肝小腸氣를 의미한다. 같은 개념으로 少陽人은 怒性에 의해 表氣인 口膀胱氣가 손상되고 哀情에 의해 裏氣인 腎大腸氣가 손상된다. 少陰人은 樂性에 의해 表氣인 目膈氣가 손상되고 喜情에 의

해 裏氣인 脾胃氣가 손상된다. 太陰人은 喜性에 의해 表氣인 耳腦頤氣가 손상되고 樂情에 의해 裏氣인 肺胃腕氣가 손상된다.²²⁾

性과 情에 의한 체질별 表氣와 裏氣의 손상을 다음 Table. 2에서 정리한다.

Table 2. An injury of the constitutional exterior Qi and the interior Qi by the nature(性) and the emotion(情)

	性	傷表氣	情	傷裏氣
太陽人	哀性	傷 鼻·腰脊氣	怒情	傷 肝·小腸氣
少陽人	怒性	傷 口·膀胱氣	哀情	傷 腎·大腸氣
太陰人	喜性	傷 耳·腦佳眞氣	樂情	傷 肺·胃腕氣
少陰人	樂性	傷 目·膈氣	喜情	傷 脾·胃氣

여기서 말하는 表氣와 裏氣는 偏小之臟에 해당하는 表部와 裏部の 正氣라는 부위적인 개념이 강하다.

또한, 甲午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汎論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稟性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稟性이 연약하면 哀心에 편착되어 대장의 眞陰이 손상되어 陰虛午熱證이 많이 발생하고 稟性이 강급하면 怒心에 편착되어 방광의 眞陰이 손상되어 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證이 많이 발생한다²³⁾고 논하고 있다.

(3) 辛丑本에 나타난 表病과 裏病개념

여기에서의 辛丑本이란 病證論 중 甲午本의 내용이 개초되지 않은 少陰人 汎論과 太陽人 病證論은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① 表病과 裏病의 구분

22)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太陽人內觸小腸病論』

* 10 ...太陽人噎膈病 太重於解體病 而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哀心深着 則傷表氣 怒心暴發 則傷裏氣故 解體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然則 少陽人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 傷目膈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佳眞氣 樂情 傷肺胃腕氣乎. 曰然.

23) 『東醫壽世保元甲午本-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汎論』

* 14. 少陽人 稟性軟弱者 多有陰虛午熱之證 稟性剛急者 多有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之證 此心疾也 雖有其藥 最爲難治

* 15. 少陽人 稟性軟弱則 哀心偏着也 哀心偏着則 大腸之眞陰 剝傷也 稟性剛急則 怒心偏復也 怒心偏復則 膀胱之眞陰 剝傷也 ...

21)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太陰人內觸胃腕病論』

* 26. 裡之裡病 表之裡病則 喜怒哀樂之內傷眞氣者 爲主證故 實難專恃其藥力而 可以全恃其調養也. 至於表之表病 裡之表病則藥效捷如影響...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汎論』

* 9. ... 表裡之表病 其勢 緩而 易治 表裡之裡病 其勢 急而 難治

辛丑本에 나타난 表病과 裏病의 개념은 병의 원인에 의한 구분에서 체질별로 반응하는 병의 성질(증상특징)에 의한 구분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甲午本의 少陽人 表病論에서 다루었던 發熱惡寒하면서 熱多寒少한 桂麻各半湯과 桂婢各半湯의 病證을 辛丑本에서는 裏病論에서 다루고 있다.²⁴⁾ 太陰人의 경우도 甲午本에서는 太陰人 陽毒燥澁과 癩疫에 의한 熱性病證을 表病論에서 다루었는데 辛丑本에서는 모두 裏病論에서 다루고 있고, 甲午本에서 腹痛下利食滯痞滿利疾浮腫 등과 같은 內傷病證을 裏病論에서 다루었는데 辛丑本에서는 모두 表病으로 옮겨왔다.(이 경우 辛丑本에서는 裏病論에 기재되어 있지만 편제상 太陰人 泛論에 해당되는 부위이므로 少陰人과 少陽人의 경우처럼 泛論에서 表裏病證과 雜病 등을 논하고 있는 부위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病證도 八綱(表裏 寒熱 虛實 陰陽)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완성된 개념을 가지게 된다.

이때, 表裏와 寒熱은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少陰人은 表熱病과 裏寒病, 少陽人은 表寒病과 裏熱病²⁵⁾, 太陰人은 表寒病과 裏熱病으로 구분이 된다. 다만, 太陽人의 경우는 병증의 특징상 寒熱虛實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²⁶⁾ 八綱을 위주로 한 병증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篇名도 바꾸지 않았다.

虛實개념은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에서 胃家實

24)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 10-1 張仲景曰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而惡寒者 此 陰陽俱虛 不可更發汗 更下更吐 面色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不能得小汗出 身必痒 宜桂麻各半湯.
 * 10-2 太陽病 似瘧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弱者 此 亡陽也 身不痒 不可發汗 宜桂婢各半湯.
 * 10-3 論曰 此證 大便不過一晝夜而通者 當用荊防瀉白散 大便過一晝夜而不通者 當用地黃白虎湯.
 25)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 6-5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汗惡寒者 即 少陰人 腎受熱表熱病也...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 9-2 論曰 發熱惡寒 脈浮緊 身痛不汗出 而煩躁者 即 少陽人 脾受寒表寒病也...
 26)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太陽人內觸小腸病論』
 * 16-9 ...今此噎膈反胃 不寒不熱 非實非虛 則此非太陽人病 而何也. 解休者 上體完健 而下體 解休然 胘痠 不能行去之謂也 少陰少陽太陰人 有此證 則他證疊出 而亦必無 寒不寒 熱不熱 弱不弱 壯不壯之理矣.

證과 脾約證은 陰證의 太陰病과 少陰病처럼 虛實 증상이 현저하게 같지 않다고 표현한 것에서 볼 수 있다.²⁷⁾ 여기에서의 虛와 實은 正氣의 虛와 實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한의학에서처럼 虛證은 正氣가 虛한것이고 實證은 邪氣가 實한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陰陽개념은 辛丑本에서 새로 命名한 병증인 少陰人의 亡陽證과 少陽人의 亡陰證 등에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때 陽은 상승하는 기운을 의미하고 陰은 하강하는 기운을 의미하여 亡陽證은 陽이 상승하지 못하고 반대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亡陰證은 陰이 하강하지 못하고 반대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²⁸⁾ 이때 체질별로 表病과 裏病의 陰陽은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少陰人의 表病은 升陽하고 裏病은 降陰하는 치법을 사용하고, 少陽人의 表病은 降陰하고 裏病은 升陽하는 치법을 사용하게 된다. 다만, 太陰人과 太陽人의 경우는 陰陽升降의 水穀之氣病證보다는 內外緩束의 氣液之氣病證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陰陽升降을 위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② 表裏之表裏病의 구분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처럼 병증을 도식적으로 表裏之表裏病으로 구분하던 방식이 없어지게 된다. 병리설명에서도 보다 실제적인 현상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亡陽證의 예를 보면 陽이 陰에 억압되어 흥격으로 오르지 못하고 대장으로 下陷되어 바깥의 방광으로 도망가서 亡陽證이 발생한다²⁹⁾고 하였듯이 정상적인 陽氣의 흐름을 裏部

27)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 6-35 胃家實 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同 自太陽病 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
 28)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 9-32 亡陽者 陽不上升 而反爲下降 則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 而反爲上升 則亡陰也. 陰盛格陽於上 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通膀胱故背表 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內冰外炭 陽將亡之兆也.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脊 而內通膈裏故 腸胃畏寒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內炭外冰 陰將亡之兆也.
 29)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 9-32 亡陽者 陽不上升 而反爲下降 則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 而反爲上升 則亡陰也. 陰盛格陽於上 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通膀胱故

인 대장에서 흥격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甲午本처럼 表의 陽氣는 도식적으로 背部에서 상승하는 것³⁰⁾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③ 表氣와 裏氣

辛丑本에서도 병증의 설명에 있어서 表氣와 裏氣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病證篇名에서는 表病이라도 甲午本에서처럼 表氣(腦髓氣, 腎氣, 腰脊氣, 膀胱氣)가 손상된 것을 표시하지 않고 裏氣(肺·胃脘氣, 脾·胃氣, 肝·小腸氣, 腎·大腸氣)가 영향을 받은 상황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病理를 설명할 때도 나타나는데 辛丑本 少陽人 病證論에서 少陽人은 胃가 熱을 받으면 大便燥한 裏病이 되고 脾가 寒을 받으면 설사증상이 나타나는 表病이 된다³¹⁾고 하였는데 裏氣인 脾와 胃로써 表病과 裏病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질병 부위를 甲午本처럼 도식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에서 보인 稟性과 관련지어 性과 情에 손상되면 表氣나 裏氣가 상하게 되는 병리설명 부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볼때 東武는 甲午本을 개조하면서 다분히 이론적인 부분은 배제한 것을 알 수 있다.

3. 表病과 裏病의 용어 구분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때 東武의 著作을 모두 포함하는 表病과 裏病 개념은 규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東武의 최후 著作인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을 기준으로 表病과 裏病의 용어를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表病·裏病, 表病

證·裏病證, 表病症狀·裏病症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表裏病설명에 중간 고리가 되는 表氣와 裏氣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의한다.

1) 表病과 裏病의 용어 개념

表病과 裏病은 東武가 體質病證篇名을 나는 病證論에 해당하는 病證의 집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少陰人腎受熱表熱病, 少陽人脾受寒表寒病, 太陰人胃脘受寒裏寒病, 太陽人外感腰脊病은 表病에 해당되고 少陰人胃受寒裏寒病, 少陽人胃受熱裏熱病, 太陰人肝受熱裏熱病, 太陽人內觸小腸病은 裏病에 해당된다.

2) 表病證과 裏病證의 용어 개념

表病證과 裏病證은 각 체질별로 表氣와 裏氣가 상했을 경우 나타나는 병증을 의미한다. 즉 表病과 裏病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고 表病證과 裏病證은 구체적인 개념으로 表病속에는 表病證과 裏病證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少陰人의 鬱狂證이나 亡陽證 등과 少陽人의 少陽傷風證이나 亡陰證 등은 表病證에 해당하고 少陰人의 太陰證이나 少陰證등과 少陽人의 胸膈熱證이나 消渴證 등은 裏病證에 속한다.

3) 表病症狀과 裏病症狀의 용어 개념

表病症狀과 裏病症狀은 表病證과 裏病證을 구성하는 個別 症狀을 의미한다.

表病證 중에는 少陰人의 表熱病證(頭痛, 身熱위주), 少陽人의 表寒病證(泄瀉위주), 太陰人의 表寒病證(泄瀉위주), 太陽人의 解體病證(解體證위주)을 구성하는 주된 症狀인 表病症狀이 있고 少陰人의 裏寒病證(腹痛, 泄瀉위주), 少陽人의 裏熱病證(便秘위주), 太陰人의 裏熱病證(便秘위주), 太陽人의 噎膈病證(噎膈證위주)을 구성하는 주된 증상인 裏病症狀이 있다.

이상을 포괄하면 少陰人의 裏病인 胃受寒裏寒病에 속하는 裏病證인 少陰病을 구성하는 症狀에는 腹痛·泄瀉 같은 裏病症狀도 있고 身體痛·骨節痛과 같은 表病症狀도 있는 것이다.

4) 表氣와 裏氣에 대한 용어 개념

表氣와 裏氣는 四象人이 가지고 있는 正氣의 다른 표현으로 表氣란 몸의 바깥부위에서 작용하

背表 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 內水外炭 陽將亡之兆也...

30)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腎病論』

* 55. 腎氣衛外 腎氣者 陽氣也
胃氣營內 胃氣者 穀氣也
陽氣 自膀胱而上升於腎膜也
穀氣 自胃中而下達於大腸也 ...

31)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 10-9 少陽人 胃受熱 則大便燥也 脾受寒 則泄瀉也 故 亡陰證 泄瀉二三日 而大便秘 一晝夜 則清陰 將亡而危境也 胃熱證 大便 三晝夜不通 而汗出 則清陽 將竭 而危境也.

는 正氣이고 裏氣란 몸의 안쪽부위에서 작용하는 正氣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正氣와 邪氣를 지칭하는 용어를 體質 및 病證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正氣는 각 체질의 保命之主를 의미하는 개념이고 邪氣는 保命之主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邪氣가 기존 한의학에서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外感六淫이나 飲食, 過勞 등이 아니라 體質別로 正氣(保命之主)에 반대되는 성질의 기운을 邪氣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東武가 『東醫壽世保元』에서 서술한 正氣와 邪氣를 모아보면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An expression of the fair Qi(正氣) and the poisonous Qi(邪氣) mentioned in 『Dongyi Suse Bowon』

	表病		裏病	
	正氣(表氣)	邪氣	正氣(裏氣)	邪氣
少陰人	甲午本 表氣 衛陽氣 衛陽之衛氣 陽氣 表裏發之力 膀胱表局 外禦之陽 裏熱撐支之勢 腎膜裏局 內守之陽 腎氣 太陽膀胱之陽氣 熱氣 膀胱陽氣 日晡氣	寒氣	裏氣 胸間胃氣 胃氣 穀氣 下達脾胃大腸之胃氣 太陽大腸之胃氣 內守胸膈胃中之胃氣 溫氣 脾胃氣	冷氣
	辛丑本 脾局陽氣 腎局陽氣 陽氣 熱氣 陽表陽溫氣	寒邪陰	胃氣 溫氣 胃中溫氣 裏陰溫氣	冷氣大腸寒氣
少陽人	甲午本 表氣 膀胱下降之陰氣 膀胱陰氣 膀胱內守之真陰 膀胱之真陰 腎膜清氣 膀胱氣 口膀胱氣	熱邪熱氣	裏氣 大腸之真陰 大腸氣 大腸出水穀陰寒之氣 腎大腸氣	陰虛火動胃熱 陰虛火動大腸熱 胃火大腸火 胃中納水穀陽熱之氣
	辛丑本 腎局陰氣 脾局陰氣 表氣 陰陰氣 清陰表陰降氣 表陰清氣 膀胱真陰	熱邪陽	裏氣 清陽 大腸清陽 胃局清陽 大腸局清陽 元氣 裏陽升氣 裏陽清氣	胃熱火氣耗陽
太陰人	甲午本 耳聾佳真氣		肺胃皖氣	
	辛丑本 表局主耳聾佳真氣	寒邪客胃皖寒	肺胃皖氣	肝熱
太陽人	甲午本 腰脊表氣		小腸裏氣 小腸之氣 小腸吸氣液陰涼之氣	胃皖之氣 胃皖呼氣液陽溫之氣
	辛丑本 腰脊表氣		小腸裏氣 小腸之氣 小腸吸氣液陰涼之氣	胃皖之氣 胃皖呼氣液陽溫之氣

少陰人과 少陽人의 경우 正氣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속성은 유사한데 少陰人의 경우 正氣는 陽氣나 熱氣이고 邪氣는 寒氣이며, 少陽人의 경우 正氣는 陰氣나 清氣 또는 清陽이고 邪氣는 熱邪나 火氣로 구분이 된다. 그 중 少陽人 裏病에서 正氣는 大腸出水穀陰寒之氣로 邪氣는 胃中納水穀陽熱之氣로 표현하여 水穀之氣病證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 특징은 水穀之氣升降에 의한 寒熱病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太陰人과 太陽人의 경우 正氣와 邪氣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太陽人 裏病에서 正氣는 小腸吸氣液陰涼之氣로 표현하고 邪氣는 胃皖呼氣液陽溫之氣로 표현하여 氣液之氣病證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IV. 總括 및 考察

病證論이란 어떤 질병의 원인과 기전 및 치법을 종합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서양의학에서의 病理學과 유사한 개념이다. 體質病證論이란 기존 韓醫學의 病證論과는 차이가 있는 四象醫學의 病證論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 정립된 개념이다. 그런데, 東武가 제시한 體質病證論은 한 순간에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지속적인 임상경험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정립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東武가 醫學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술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보는 病證觀이나 篇名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송일병¹⁴은 東武가 “草本卷 이후 形象觀的 認識方法을 배경으로 構造的인 입장에서 體質病證을 정리하였는데, 草本卷과 甲午本에서는 偏小之臟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였고 辛丑本에서는 偏小之臟·偏大之臟을 같이 고려하고 寒熱概念을 더하여 한 단계 발전된 차원의 體質病證觀을 제시하였다”고 정리하고 있다.

東武가 제시한 體質病證論의 특징 중 하나는 病證을 비슷한 屬性으로 분류한 후 輕重을 구분하는 방법 즉, 包括的인 병증인식방법인데 그 중

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甲午本때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表病과 裏病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기존 한의학에서도 陰陽·表裏·寒熱·虛實과 같은 八綱으로 병증을 분류하여 이해하고 있는데 그 중 병의 원인과 발생 부위 및 증상에 따라서 表病과 裏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한의학에서 裏病에 해당되는 胃腸疾患이 體質病證論에서는 少陰人 변비의 경우처럼 表病에 배속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體質病證論에서의 表病과 裏病은 기존 한의학과는 다른 구분에 의한 독특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體質病證論에 있어서 表病과 裏病의 구분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東武가 초기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表病과 裏病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의서에서 體質病證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용하여 설명하다보니 복잡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저자가 東武의 著作 중 表病과 裏病에 대한 부분을 고찰하였다.

表病과 裏病의 개념에 대해서 草本卷에서는 病證을 크게 表病과 裏病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병의 원인과 발생 부위에 따라 表病은 外感으로 인해 인체의 表部位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表氣가 손상된 것이고, 裏病은 內傷으로 인해 인체의 裏部位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裏氣가 손상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

甲午本에서 表病과 裏病을 분류한 기준은 表裏病證 篇名에서 알 수 있듯이 偏小之臟이 外感和 內觸되어 병증이 나타난 것으로 발병원인에 따라서 表病과 裏病을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병의 원인에 있어서 性에 상하면 表氣가 손상되어 表病이 발생되고 情에 傷하면 裏氣가 손상되어 裏病이 발생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때 등장하는 表氣와 裏氣는 체질별 偏小之臟에 속하는 表部와 裏部の 正氣라는 부위적인 개념이 강하다.

辛丑本에서 表病과 裏病을 분류한 기준은 바뀐 病證論 篇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偏小之臟과 偏大之臟을 모두 고려한 部位와 寒證 및 熱證 같은 증상특징까지 포함된 개념의 表病과 裏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辛丑本으로 오면서 甲

午本의 병증분류에 변화가 보이는데 특히 太陰人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대해 임진희 등¹⁵은 “관본에 따른 병증 인식의 변화는 질병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이 외부의 원인이 아니라 개체의 반응 차이라는 體質 病證의 개념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表病과 裏病이 초기에는 주로 발병 원인과 병증 부위적인 관점에서 분류되다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이르러서는 체질별 병증의 발현특징에 따라서 재분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病과 裏病의 병리기전에서 공통적인 것은 체질별 正氣인 表氣와 裏氣가 손상된 것이다. 東武는 病證을 正氣와 邪氣사이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항재와 최승훈¹⁶은 “기존 한의학에서는 발병주체인 인간으로 부터 객체화 되어 病因이 규정이 되는 반면에 사상의학에서는 주체 내부의 性情의 편급 자체가 病因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體質病證論에서 邪氣는 主體와 따로 떨어진 개념의 六氣나 飲食등이 아니라 체질별 正氣인 保命之主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기운을 의미한다.

表氣와 裏氣의 개념도 초기에는 부위적인 개념으로 腦髓·腎·腰脊·膀胱의 表部와 臟·腑의 裏部の 기운을 의미하다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와서는 臟·腑를 위주로 表와 裏에서의 체질별 保命之主의 기능을 포괄하여 의미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때 東武의 著作을 모두 포함하는 表病과 裏病 개념은 규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東武의 최후 著作인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을 기준으로 表病과 裏病의 용어를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表病·裏病, 表病證·裏病證, 表病症狀·裏病症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용어를 규정하고자 한다.

表病과 裏病이란 辛丑本의 表裏病證篇名내에 존재하는 病證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表病證과 裏病證은 表病이나 裏病에 속하는 개개 병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表病症狀과 裏病症狀은 表病證과 裏病證을 구성하는 체질별 症狀을 의미한다.

단, 상기 용어 규정은 구체적인 表病과 裏病의

특성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은 서로 섞여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한정하여 연구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후 각 체질별 表裏病證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太陰人 濇病例³²⁾에서 보이듯 表病證과 裏病證이 동시에 나타나는 表裏兼病證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V. 結 論

東武의 著作인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중에 나타난 表病과 裏病의 개념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四象人 體質病證의 큰 구분이 되는 表病과 裏病의 개념이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表病과 裏病이 초기에는 주로 발병 원인과 병증 부위적인 관점에서 분류 되다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와서는 체질별 병증의 발현특징에 따라서 재분류 되었다.
3. 表病과 裏病의 개념에서 공통적인 것은 正氣인 表氣와 裏氣가 손상된 것인데, 表氣와 裏氣의 개념도 초기에는 부위적인 개념으로써 腦顛·膂·腰脊·膀胱의 表部和 臟·腑의 裏部の 기운을 의미하다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와서는 臟·腑를 위주로 表와 裏에서의 체질별 正氣의 기능을 포괄하여 의미하게 된다.
4. 表病과 裏病이란 辛丑本의 表裏病證篇名내에 존재하는 病證들의 집합이고, 表病證과 裏病證은 表病이나 裏病에 속하는 개개 病證이며, 表病症狀과 裏病症狀은 表病證과 裏病證을 구성하는 체질별 症狀이라고 규정한다.

VI.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서울: 大星文化社. 1998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8:348-433.
3.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7, 11.
4. 崔義權, 金敬堯. 四象醫學에서의 陰陽·寒熱·表裏·虛實病理의 變用. 四象醫學會誌. 1997; 9(1):25-101.
5.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26.
6. 趙晃晟. 性情과 表裏證과의 關係. 四象醫學會誌. 1993;5(1):49-51.
7.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四象醫學會誌. 1994;6(1): 81-87.
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9. 程國彭. 醫學心悟. 서울: 서원당. 1994
10. 文濬典, 安圭錫, 崔昇勳.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3
11. 崔昇勳. 韓方病理學. 서울: 一中社. 1997:287-289
1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刊行. 서울. 2000
13.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14. 송일병.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이체마의 치료의학적정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 1-7.
15.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판본에 따른 병증 개념의 변화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 26-33.
16. 이항재, 최승훈.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의 比較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7;9(2):95-145.

32)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太陰人胃脘受寒表裏病論』
 * 12-13 有一太陰人素病 咽噎乾燥 而面色青白 表寒或泄 蓋咽噎乾燥者 肝熱也 面色青白 表寒或泄者 胃脘寒也 此病 表裏俱病 素病之太重者也. ...